

# EU, 2004~11년 농산물수급 전망

유럽연합(EU)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농산물 수급전망을 발표하였다. 신규가입국 10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2011년도 주요 곡물을 비롯하여 가축, 육류, 유제품 등의 수급전망을 정리한다.

## 1. 경종작물(arable crops)

### 1.1. 곡물

2003년 EU의 곡물 생산량은 이상 기후로 인해 현저히 낮았다. 총 곡물 생산량은 2002년 2억 6,300만 톤에서 2003년 2억 2,900만 톤으로 감소했다. 기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의무 휴경 비율이 5%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2004년의 곡물 수확량은 2억 6,450만 톤에 도달할 것이다. 이 중 기존 회원국(이하 EU-15)이 2억 1,000만 톤 정도를, 신규 회원국이 5,300만 톤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곡물 시장에 대한 중기 전망은 밝은 편이지만, 유독 보리(barley)만은 예외이다.

곡물 재배면적은 2003년 5,120만ha로 격감했지만, 2004년에는 평년의 기후가 회복되고, 의무 휴경면적이 5%로 낮아지면서 총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5,350만ha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EU-15 외에도 슬로베니아와 몰타에도 10%의 의무 휴경이 적용되는 2005년에는 총 경지면적이 5,210만ha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회원국 가입이후의 유럽연합(이하

EU-25)의 곡물 생산면적은 2009년경에 근소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기간부터 신규 회원국에도 휴경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회원국의 경우 경지의 상당 부분이 소농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휴경 의무로 인해 생산제약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제빵용 밀(common wheat), 마카로니용 밀(durum wheat), 옥수수의 수익성은 여전히 높은 반면 보리의 경우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 곡물 수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연간 1.1% 수준) 덕분에, 전체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전체 생산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는 곡물 생산량이 2억 7500만 톤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정부 개입에 의한 비축량(intervention stocks)은 590만 톤으로 약간 늘 전망이다. 비축량 중 대부분은 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비축분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늘어나 소비량이 2억 5,000만 톤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곡물의 내수 시장 소비분에 대한 예상치는 2002년 이전 전망보다 작다. 전망치가 낮아진 원인 중 하나는, 가축 생산이 예상보다 적고 신규 회원국의 사료 효율성이 높아져 사료용 곡물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곡물 가격에 대한 전망이 좋고 수입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EU는 수출을 3,400만 톤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조가 없는 제빵용 밀, 마카로니용 밀, 효모용 보리 수출량이 포함되어, EU의 수출량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결정한 보조를 받은 수 있는 연간 수출상한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율 변동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흑해 지역의 곡물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곡물의 총 수입량은 중기에도 1,000만 톤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제빵용 밀과 마카로니용 밀 시장은 2011년까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옥수수 시장(특히 신규 회원국의 경우)에 대한 전망은 중기에도 밝은 편이다. EU-25의 옥수수 생산은 2004년의 5,100만 톤에서 조금씩 늘어나 2011년에는 5,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 중 신규 회원국에 생산하는 양은 1,150만 톤 수준이다. 옥수수 소비량도 4,900만 톤에서 5,200만 톤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송비용이 높아서 EU 서부의 옥수수 부족 지역과 동부의 과잉 생산 지역의 통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로 인해 EU 서부와 북부에서는 280만 톤 정도의 옥수수를 수입하면서도, 320만 톤 정도의 옥수수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게 될 것이다. 신규 회원국 가입 이후 옥수수의 생산자 수취 가격은 평균적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분화로 인해 EU내 지역 간에 옥수수 가격차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리(barley)의 시장 전망은 어두운 편인데, 이는 보리에 대한 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통합 이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시장의 잠재 수요 변화가 제약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기 생산량은 5,500~5,600만 톤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사료 시장에서 보리는 밀과 옥수수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료용 보리에 대한 수요는 2004년의 3,750만 톤에서 2011년 3,410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내수요 및 해외 수출 물량 감소와 생산량 정체가 맞물리면서 공공 비축물량이 늘어나 2011년에는 59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호밀(rye) 생산량이 급감한 점이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과정에 반영되면서 생산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호밀 시장도 중기적으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호밀 수출량이 1백만 톤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생산자 수취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1.2. 지방종자(oilseeds)

EU의 지방종자 부문은 생산성 향상과 지지가격 전망, 그리고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 힘입어, 중기적으로 생산 잠재력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총 지방종자 재배면적은 중기적

으로 770만 ha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약 2백만 ha 정도의 지방종자 경지가 신규회원국에 있다. 신규 회원국에서 지방종자 재배가 늘어나는 이유는 해바라기 씨의 가격 조건이 더 좋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신규 회원국 가입이후의 EU(이하 EU-25)에서 지방종자의 생산량은 2004년 1,880만 톤에서 2011년 1,950만 톤으로 늘었고, 이 중 250만 톤 정도는 비식용이다. 현재 전망은 에너지와 조세정책이 중기적으로도 불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가정 하에서 연료용 지방종자 생산 중 의무휴경면적은 70만 ha 선에서 유지될 것이다. 지방종자 생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EU는 여전히 순수입국으로 남을 것이며, 특히 콩과 해바라기 씨에 대한 국내 수요가 많다.

## 2. 육류와 가축

### 2.1.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EU의 쇠고기 소비량은 제2차 광우병 파동에서 거의 벗어났으며, 2003년 소비량은 20 여년 만에 생산량을 앞질렀다. 이러한 시장의 활황세는 2004~11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2004년에 정부 개입 비축량을 다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회원국의 쇠고기 소비량은 EU-25 전체 소비량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송아지 고기 소비는 7% 수준이다.

영국이 '30개월 계획안(Over Thirty Months Scheme; OTMS)'<sup>1)</sup>을 2005년부터 철폐하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쇠고기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서

---

1) 광우병 파동 이후 영국의 '환경, 식량, 농촌개발부'가 발표한 계획안으로 생후 30개월 이하의 소를 식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실험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defra.gov.uk> 참조

쇠고기 생산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기적인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하여 2011년에는 79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반면 수요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쇠고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수입 물량이 증가하여 전망 기간 동안 57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2.2. 돼지고기

돼지고기 생산의 대부분 국내·해외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생산량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율은 낮아질 것이다. 2011년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280만 톤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 돼지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일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3년 44.7kg에서 2011년 46kg으로 늘었고, 신규 회원국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 2.3. 가금류

2003년 봄 네덜란드에서 조류독감(avian flu)이 발병해 EU-15의 생산량이 2% 이상 감소한 이래, 가금류 생산량은 꾸준히 회복되어 왔다. 가금류에 대한 중기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은 편인데, 이는 가금육의 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요리 재료로 많이 쓰인다는 점에 기인한다. 연간 일인당 가금육 소비량은 2003년 23kg에서 2011년 24.5kg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특히 신규 회원국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가금육 수입은 최근 몇 년간 급증했지만, 2004년부터 염장육(salted meat)에 대한 세관 검사가 강화되고 조류독감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입량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대부분 냉동육과 가공된 형태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 2.4. 계란

최근 EU 일부 지역에서 계란 생산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식용 계란의 생산량은 2001년 629만 톤으로 정점에 이르렀고 그 후 2년 동안 감소했다. EU-15의 경우 생산비용이 높고 마진이 적어 계란 생산이 제약을 받지만, 신규 회원국의 생산 조건이 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EU-25의 총 생산량은 64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높은 수입 수준과 일부 지역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EU의 계란 소비는 중기적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계란 소비량은 2004년 614만 톤에서 2011년 628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은 3만 톤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출은 2011년 15만 톤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 2.5. 양/염소 고기

2001년 구제역 발병 이후 양·염소 고기 생산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었지만, 2003년 가뭄과 목초지의 부족으로 인해 정체 상태이다. 생산량과 연간 일인당 소비량의 근소한 감소 추세는 중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염소 고기의 수입은 일부 제3세계 국가의 시장 접근이 완화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3. 우유와 낙농 제품

## 3.1. 우유

EU-25의 우유 생산은 우유 기준 생산량(milk reference quantities)<sup>2)</sup>의

---

2) 젖소 한 마리 당 연간 5.8 톤의 우유를 생산하는 것을 기준량으로 하고 있다. 이 산유량을 기준으로 우유 가격 인하에 따른 보상이 적용된다. 기준 생산량을 상회

발전 양상의 영향을 받아 2011년에는 1억 446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U-15의 생산량은 우유 할당량(milk quotas)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농가 소비량은 이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CAP reform)에서 우유 할당량을 늘리기로 한 결정에 힘입어 장기적인 농가의 사육 두수 감소 추세는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까지의 예상 기간 동안 평균 우유 생산량이 매년 1.6%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EU-15 내의 젖소 수는 2003년 1,920만 두에서 2011년 1,730만 두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회원국의 경우 농가에서의 우유 소비와 직접 판매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전체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망 기간 동안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subsistence production)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의 가장 큰 근거는 EU 통합 이후 농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복지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가 소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가들이 더 많은 대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EU-15의 우유 할당량 증가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회원국의 우유 생산량(즉, 자가 소비량과 시장 출하량)은 2,200만 톤 규모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규회원국의 시장 출하량은, 가입 협약(accession Treaty)에 의거하여 우유 할당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U-25에서의 연간 두 평균 산유량은 2011년 6.7 톤으로 2003년 5.9 톤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 3.2. 치즈

EU-25의 중장기 치즈 소비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지만, 2000~01년

---

해서 산유를 할 경우 초과분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록적인 생산 증가(2년 동안 7% 증가) 후 증가율은 완화될 전망이다.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3년의 17.3kg에서 2011년에는 18.7kg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신규 회원국 가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소비량이 전망 기간 동안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량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3.3. 버터

2002년 치즈 생산량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버터 생산이 늘어났고, 이 결과 가격이 떨어지고 비축분이 늘어났다.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 과정에서 비축분에 대한 매입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 버터 생산은 감소할 전망이다. 2006/07~08/09년 동안 버터 할당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안정화 경향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버터 소비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현재 4.1kg에서 2011년까지 3.8kg 수준으로 떨어지고, 특히 신규 회원국에서는 3.3kg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3.4.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2002-2003년에 소강 상태를 보이기는 했지만, 탈지분유의 생산과 소비는 중기적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탈지분유 생산량은 2003년 140만 톤에서 2011년 9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전체 생산량의 20% 이하를 생산하고 있는 신규회원국의 경우 2005년까지 26만 톤을 생산해 단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생산량이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소비량 감소분보다 급격하기 때문에, 정부 비축분도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